

2012년 8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

일시 : 2012. 8.30(목)

위원 주요 발언 내용

▲ 올림픽 보도 프레임 바꿔야

- 진종오 선수 동네 방문 등의 보도는 금메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형태로 스테레오 타입의 보도로 진부함. 금메달 중심, 영웅주의, 애국주의 올림픽 보도 방식은 바뀌어야(한박무 위원, 김경모 위원)
- 선수의 개인 용모, 집안 환경 등 보도는 올림픽 감동을 줄여(이석구 위원)
- 남자 축구, 배드민턴 저주기 게임, 판정 등 보도는 감정 치우쳐. 객관적인 보도 필요(이석구 위원, 최종준 위원)
- 유도 송대남 선수의 체급 변경과 도전에 대한 이슈보다는 메달 획득 후 감독과의 맞질 등만 보도해 아쉬워(김정연 위원)
- 예상 종목 외 뜻밖의 종목에서 메달을 딴 이유 등 스포츠 보도의 과학성 보완 필요(김경모 위원). 양학선, 양궁 등 과학적인 분석 및 기획보도 해야(홍승용 위원, 김경모 위원)
- 진종오 선수의 아들의 이름과 태몽을 커다란 자막으로 기재한 것은 뉴스Y의 격을 떨어뜨려. 인터뷰 통해야(임영호 위원)
- 선수단의 귀국 동정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다른 영역의 보도에 소홀. 균형 있는 시간 할애 중요(임영호 위원)
-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종목이나 비인기 종목의 보도 부족해. 스포츠 과학 이야기, 자원봉사자들의 노고 등 런던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쓰는 이들에 대한 소식 등이 다소 적었음(최종준 위원)

▲ 기상 보도 방식 개선해야

- 태풍, 재난 방송시 피해 현장 보도 영상이 반복. 지방마다 모두 비슷했음. 편집상의 문제와 비디오 처리에 더 신경써야(김정연 위원)
- 태풍 보도가 동일한 화면이 반복. 기자로 커버 안되면, 통신원들을 지역마다 훈련 시켜 속보에 대처하는 방안 고려해야(김경모 위원, 홍승용 위원)
- 인권, 자살 등 관련 보도 매뉴얼이 생겨나고 있음. 뉴스Y도 재난 방송 매뉴얼을 반드시 만들어야(김경모 위원)
- 태풍관련 보도만큼이나 피해방지요령, 긴급조치요령, 피해 후 행동 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보도해 시청자들이 충분히 인지하도록 해야(최종준 위원)
- 위험한 지역에서 리포터들이 취재하는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불안함을 안겨 줄 수 있어 리포터의 안전이 보장된 상황에서 취재 필요(최종준 위원)

▲ 하단 스크롤 뉴스 및 월(Wall) 개선해야

- 뉴스Y 하단 흐르는 자막 뉴스 타이틀 앞에 점이 있어야(임상혁 위원)
- 중앙에 몰려있는 자막도 위치를 수정했으면. 스크린이 전반적으로 현란해 입체 큐브도 없는 것이 더 나아(박영상 위원장, 차경애 위원)
- 하단 자막이 타 방송사와 비교해 리얼타임 속보인지 확인해야. 시간대별 업데이트 필요. 또 뉴스Y 자막도 토픽별로 구분해서 보여주고 핫이슈는 자막처리를 다르게 해야(김경모 위원, 홍승용 위원)

▲ 뉴스Y 출연자 복장 및 유니폼 색깔 다시 고민해야

- 뉴스Y 기자들은 태풍 보도시 주황색 점퍼를 착용하고 있는데 위기 상황과 색상이 적절치 않음. KBS는 경고의 의미인 노란색 우의 착용(김경모 위원)
- 드레스 코드와 유니폼 색깔을 고민해야. 토크쇼에 나오는 대담자가 세련된 모습으로 나오지 않음(홍승용 위원)

▲ 방송 보도의 심층성 강화해 특화 필요

- '지방시대'는 전국뉴스를 단지 지방시대로 재편성한 것에 불과. 지방색이 짙은 뉴스를 발굴하고 기획해야 진정한 지방 뉴스(한박무 위원)
- 여수 엑스포 마치고 난 후 엑스포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 자의적인 평가만 보도함. 문제가 있는 부분은 비판이 있어야(이석구 위원)
- 독도 관련 보도에서 정부가 조용한 외교에서 강경 외교로의 변경에 대한 배경 해설 보도는 보기 어려웠음. 양국의 반응 보도에 급급(이석구 위원)
- 타깃 마케팅 고려한 뉴스 발굴해야. 예로 현재 대학 입시 등이 중요함. 복잡한 대학별 입시 요강을 정리해 설명하면 좋을 것(홍승용 위원)
- 독도 이슈에 대해서도 왜 우리 땅인지에 대한 논리적으로 정리한 보도와 전문가 집단 토론 필요(홍승용 위원)
- '반값 등록금' 문제는 대선 공약으로 굳어지기 전에 난상토론의 장 필요. 토론으로 변화 유도해 뉴스Y가 준공영 방송으로 자리매김해야 (홍승용 위원)
- 정치권 뉴스에 치중돼, 문화 및 생활 보도도 강화 됐으면(차경애 위원)
- English Y 보도 시간을 늘려 특화해야(김정연 위원, 한박무 위원)
- 통계치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획기사에 관심 가져야(박영상 위원장)
- 대선 이슈, 관훈 토론 등은 뉴스Y만의 시각, 색깔을 갖고 뉴스Y가 만져서 보도해야(박영상 위원장)
- 가수 싸이 보도는 너무 길고 상세해 장삿속이 있나 오해해(박영상 위원장)
- 한일 관계 냉각 보도에 하나여행사 대리 인터뷰는 부적절. 전문가라고 볼 수 없음(박영상 위원장)

- 동국대 곽태경 교수와 성범죄 관련 인터뷰는 5분 정도로 길게 진행. 인터뷰 대상자에 적절한 질문인지 질문이 많지는 않은지 고민해야(박영상 위원장)

▲ 반복되는 뉴스, 지루한 뉴스 개선해야

- 되풀이되는 뉴스 지루해. 시간대별로 업데이트 반영해야. 시간대별 아이템 체크 필요(박영상 위원장)

▲ 인터뷰 방식 개선하고 토론 강화해야

- '뉴스초대석' 내용은 좋으나, 배경이 삭막. 스튜디오 배경을 개선하거나 초청자 집에서 인터뷰하는 것이 어떨지(홍승용 위원)
- 인터뷰를 넘어서 집단 토론을 하고 인재풀을 넓혀야(홍승용 위원)

▲ 긍정적인 평가

- 올림픽 보도 대체적으로 잘 마무리. 올림픽 경기 과정, 예상, 결과 등에 대한 보도 자체는 충실해(최종준 위원, 김경모 위원, 임영호 위원).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 기자회견 및 현장 연결은 유익했음. 메달 획득 후 선수들의 휴먼 스토리에 맞춘 보도는 감동적. 인터뷰 코너 등에서 올림픽 비하인드 스토리는 흥미진진해(최종준 위원)
- 태풍의 진로와 관련하여 예상 이동 방향 등 시청자들이 충분히 태풍의 위험을 감지하고 상황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보도가 도움됐음. 그래픽 활용도 적절했음(임영호 위원, 최종준 위원). 태풍 보도에서 지역별 강우량, 현재 태풍의 진로 등을 좌우 상단 자막으로 알려주는 것은 좋았음(한박무 위원). 태풍 보도는 현장 연결이 잘 됐다고 생각(차경애 위원)
- 포토뉴스나 세계의 날씨 등의 구성 참신함(최종준 위원)
- 공천 헌금 파문, 각 당 경선 내용 등 자세한 보도는 유익해. 여야간 보도, 전화 연결 등 균형을 잘 잡아 보도하고 있음(차경애 위원)
- 휴먼다큐 '사람들'의 '김원길 촌장 부부' 등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(차경애 위원)

▲ 기타

- 주요 공공장소에서 뉴스Y가 방영될 수 있게 해야(임상혁 위원)
- 조선일보, 매일경제 등에는 뉴스Y 편성표가 없어 아쉬워(임상혁 위원)
- 보험 광고 등 광고가 길고 반복돼 채널 돌려. 케이블TV 냄새가 많이 나는 광고가 많아 아쉬워(임상혁 위원)
- English Y에서 계속 South Korea로 계속 나와. 우리나라 공식 명칭인 'Republic of Korea' 로 정정돼야(박영상 위원장)
- '철퇴를 가한다', '불임 정당', '적자 경쟁' 등 용어는 선정적, 폭력적, 어떤 집단을

비하하는 용어이기에 보도 용어로는 적절치 않아(이석구 위원)

- 경쟁사 대비 빠른 방송 시작 시간(매 정시보다 10분 빠른 뉴스 등) 관련해 편성 시간 재검토해야(홍승용 위원)
- SNS 적극 활용해 뉴스 스펙트럼 확대해야(홍승용 위원)
- '웨더'를 한글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. '날씨'로 표현을 바꾸거나 영어로 'weather'로 수정해야(홍승용 위원)